

구술사연구 제15권 1호

ISSN : 2233-8349(Print) 2713-9328(Online)

근현대역사박물관의 구술 전시와 공공역사

윤택림

To cite this article : 윤택림 (2024) 근현대역사박물관의 구술 전시와 공공역사, 구술사연구, 15:1, 73-111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근현대역사박물관의 구술 전시와 공공역사*

윤택림**

〈국문초록〉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전후로 일어난 역사박물관 붐은 최근 근현대역사박물관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근현대역사박물관의 성장과 2010년대 말부터 논의되고 있는 공공역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공공역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분석되어온 것이 바로 박물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현대역사박물관은 당대의 사건을 경험한 목격자들의 존재로 인해 구술 전시가 도입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공공역사와 관련하여 근현대역사박물관의 구술 전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술 전시에 연관된 쟁점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근현대역사박물관의 현황과 추세를 정리하고 연간 관람객 10만 이상인 근현대역사박물관 25개 중 7개의 구술 전시 상황을 파악한다. 이 사례들을 통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구술 전시의 유형과 효과를 논의하고 구술 전시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전시 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역사 관점에서 구술 전시의 쟁점들을 논의하고 근현대역사박물관에서 구술 전시가 공공역사에 기여하는 바를 밝힌다.

주제어: 근현대역사박물관, 구술사, 구술 전시, 공공역사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3050638).

이 논문 집필을 위하여 인터뷰에 응해주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수진 학예관과 전북대학교 조성실 BK 연구교수께 감사드린다.

**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oralhistory@hanmail.net

1. 시작하는 글: 근현대역사박물관에서 왜 구술 전시인가

한국 사회에서는 2000년 전후로 역사박물관 붐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근현대역사박물관이 다양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관람객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현대역사박물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21세기에 들어서서 20세기의 근현대사는 가까운 과거이며 현재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기억 전쟁으로 인해 기억할 수 있고 기억이 남아있는 근현대 시기 기억의 편린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닐까.

2012년 개관한 현대사박물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근현대역사박물관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고 기억 투쟁의 장소가 되었다. 독일의 현대사박물관 논쟁(이동기 2011)으로부터 시작하여 역사박물관은 현대 한국인의 일상에서도 쟁점이 되어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둘러싼 논쟁을 2022년 상설관 개편으로 이어가고 있다(이동기, 홍성률 2012; 윤용선 2017; 이지원 2022; 전진성 2021) 역사박물관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사회학(정호기 2009; 전희진, 박광형 2016), 문화예술교육(김상미 2012; 정혜연 2020), 역사교육(강선주 2008, 2012; 김민정 2012; 이정원 2012; 조혜진 2015; 이정은, 최고운 2020)에서도 진행되어왔다. 특히 공간디자인 연구자들은 역사박물관의 전시 서사구조와 스토리텔링에 주목하였다(최유나, 이찬 2011; 고선영, 한은령 2018; 이서영, 최익서 2018).

그런데 근현대역사박물관 붐은 또한 구술 전시의 도입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구술 증언 수집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관구술채록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방대한 양의 구술자료가 수집되었고, 박물관 전시에도 활용되기 시작했다(윤택림 2023). 또한 역사박물관 전시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은 구술사가 스토리텔링의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기에 구술자

료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현재는 수집된 양에 비하여 극히 적은 구술자료들이 전시에 활용되고 있지만, 구술 전시는 역사박물관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그런데 기억이 재현된 구술자료는 기본적으로 청각 자료라서 구술자료가 박물관 전시가 요구하는 시각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쟁점들이 있다.

또한 2010년대 중반부터 역사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역사에서 박물관은 대표적인 공공역사의 장이며 현재까지 공공역사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현대역사박물관은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기억의 정치학에 연류되어 있어서 논쟁과 갈등의 공간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구술사는 공공역사로 시작되었고, 지역사에서 공공역사와 협업을 해왔다(윤택림 2020:30). 그렇다면 박물관 구술 전시와 공공역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구술 전시는 공공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근현대역사박물관 구술 전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술 전시에 연관된 쟁점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최근 근현대역사박물관의 현황과 추세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연간 관람객 10만 이상인 근현대역사박물관의 구술 전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례들을 통하여 구술 전시의 유형과 효과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구술 전시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전시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역사 관점에서 구술 전시의 쟁점들을 논의하고 근현대역사박물관 구술 전시가 공공역사에 기여하는 바를 제시할 것이다.

2. 근현대역사박물관 현황과 추세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 역사박물관과 기념관 붐이 일고 있으며 한국

에서도 2000년을 전후로 특히 근현대역사박물관과 기념관이 많이 건립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조사한 「근현대역사박물관기념관 건립에 관한 조사분석」에서는 근현대역사박물관을 정의하기 위하여 국내 박물관 분류, 국제기구의 분류, 그리고 외국 사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역사박물관이 주요 박물관의 하나로 분류되고 전체 박물관 수에서도 비중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2020: 9). 그러나 근현대역사박물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따로 찾아낼 수는 없어서, 근현대역사박물관을 “역사 박물관 중 주로 근현대 시기의 지역, 사건, 역사적 인물 등을 주제로 한 박물관”으로 정의하였다(윗글 같은 쪽). 2017년에 나온 부산연구원의 「부산 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 기본계획」보고서에서도 “부산의 특수한 근현대성을 의미있게 담은 역사박물관”을 부산 근현대역사박물관으로 이해하고 있다(2017: 3). 따라서 한국에서 근현대 시기를 조선이 개항한 187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로 본다면(민족문화연구원 2020:9), 그 시기에 특정 지역, 사건, 역사적 인물 등을 주제로 설립된 박물관을 근현대역사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근현대역사박물관기념관 건립에 관한 조사분석」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근현대역사박물관은 총 345개이고 이 중 1980년대에 건립된 것은 8%, 1990년대에는 15%이고 2000년 이후가 78%에 달한다(2020: 12). 전체 박물관에서 차지하는 근현대역사박물관의 비중도 1990년 11%에서 2018년에는 18%로 증가하였다(윗글, 84). 지역적으로 볼 때 많은 근현대 박물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서울(78개), 강원도(42개), 경기도(39개), 경북(28개), 부산(22개) 순이다(윗글: 15). 인구 대비로 보면 강원도, 제주, 경북, 전북, 전남 순으로 수도권의 근현대역사박물관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윗글, 같은 쪽). 그러나 학예인력, 소장품, 연 관람객 등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의 근현대역사박물관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윗글, 같은 쪽). 운영 주체를 보면 전체 근현대역사박물관 중 공립이 181개로 가장 많고 사립이 140개

다. 공립과 사립은 1990년대 대비 32%에서 83%로 증가해서 근현대역사박물관의 건립이 공립과 사립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윗글, 20).

근현대역사박물관의 주요 주제로 가장 많은 것이 인물이고 다음이 사건, 기구, 근대문물, 그리고 지역이다. 그러나 지역의 근현대사역사박물관은 66개인데 그중 61개가 2000년대 이후에 개관되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윗글, 22). 인물 관련 박물관에서도 소분류로 나누어 보면 항일이 가장 많고, 사건 관련 박물관에서도 소분류로 나누면 한국전쟁이 가장 많고 다음이 항일, 민주화 순이다(윗글, 같은 쪽). 따라서 근현대역사박물관의 전시 주제에서 항일, 한국전쟁과 민주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항일과 식민지 피해 관련 박물관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민주화 관련 박물관은 1998년 정권 교체 이후 늘어났고 수도권과 전남에 분포한다. 그리고 한국전쟁 관련 박물관은 주로 강원도와 경상도에 분포하고 있다(윗글 85).

위 보고서는 박물관 건립 붐에서 근현대역사박물관의 역할이 상당한데 이러한 근현대역사박물관 건립 붐의 요인을 네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세계적으로 1990년대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인권, 평화운동이 대두되면서 과거사를 재조명하는 박물관과 기념관 설립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내적으로 1998년 이후 정권 교체 때마다 과거사가 다시 조명되면서 기억 정치를 통해서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셋째는 제도적으로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 정체성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에서 근현대역사박물관이 건립되었고, 이것이 공립 근현대역사박물관의 증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넷째는 2000년대 지역 개발, 지역 재생 혹은 관광 사업과 같은 지역적, 경제적 요인으로 근현대역사박물관 건립이 많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윗글 27-28).

지방자치시대에 근현대역사박물관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근현대역사박물관은 지역사회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정체성

을 형성하고,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을 창출하고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윌글 58). 그래서 위 보고서는 지역 경제와 관련하여 근현대역사박물관이 지역 축제와 연결되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근현대 역사 콘텐츠가 지역 공립 박물관을 육성하려는 중앙정부 정책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윌글 55). 그런데 지역박물관이 관광산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대형 박물관이 지역의 소규모 박물관에게 지역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협업에 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공립박물관의 안정적인 콘텐츠 생산을 위해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고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윌글 56).

위 보고서는 또한 근현대역사박물관의 기획전들을 분석하였는데 2019년의 경우 345개 근현대역사박물관에서 93개 관만 기획전을 개최했을 정도로 기획전 개최가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윌글, 62). 그 이유로는 지역 박물관의 재정적, 인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크지만, 최근에는 박물관에서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 기획전 보다는 교육프로그램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윌글, 63). 그러나 근현대역사박물관은 기획전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박물관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전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를 강조하였다(윌글, 같은 쪽). 특히 지역민들이 경험한 지역에서의 정치, 사회, 교육, 생활 등에 대해서 기록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 보고서는 도시재생을 통한 문화공간으로서 마을박물관에 주목하였다. 2000년 이후로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기록하여 전시하는 마을박물관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기억과 흔적을 기록하고 축적 정리하는 마을 단위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마을박물관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윗글, 64). 현재 전국적으로 마을박물관은 16개로 전통적인 박물관과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다. 마을박물관은 주민(관람자)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구술이 핵심적이다. 지역전문가와 마을 주민이 함께 공동체적 관리를 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운영된다. 공립박물관이 대부분이지만 운영 주체는 주민이다(윗글, 66). 위 보고서는 마을박물관이 “박물관의 민주화, 공공역사의 저류와 지역 공동체, 마을이 만나는 지점”으로 보고 있다(윗글, 85). 그러나 마을박물관의 지속적인 성장은 학예인력이 풍부한 근현대역사박물관의 네트워킹에 기반한 지원과 상호교류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3. 근현대역사박물관의 구술 전시

지난 20여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근현대역사박물관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구술 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20년 기준으로 연간 관람객 수, 사건, 지역을 소주제로 하여 25개 박물관을 선정했다. 연간 관람객 수는 공공역사에서 박물관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시 주제에서는 인물보다는 인물이 포함되는 사건과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다음 <표 1>은 연간 관람객 수 순으로 정리된 근현대역사박물관 목록이다. 근현대역사박물관기념관 건립에 관한 조사분석에서도 언급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을박물관은 근현대역사박물관에 포함되지만 연간 10만 이상의 관람객을 보유한 수도 국산달동네박물관만이 <표 1>에 들어갔다.

〈표 1〉 근현대역사박물관 목록

(2020년 기준으로 연간 관람객 수, 사건, 지역을 소주제로 선정)

	박물관 명	개관 년도	운영	특징	소장유물/ 연관람인원	소재지	조사 여부
1	전쟁기념관	1994	사립	현대사 /사건	34,255/ 2,379,672	서울	○
2	독립기념관	1987	사립	근현대사 /사건	98,928/ 1,631,742	충남 (천안)	○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2	국립	근현대사/통사	130,981/ 1,092,456	서울	○
4	양구전쟁기념관	2000	공립	현대사/사건	미상/881,15 0	강원 (양구)	
5	군산근현대역사박물관	2011	공립	근현대사 /지역	3,000/ 810,014	전북 (군산)	○
6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998	공립	근현대사/인물, 사건	241/ 678,033	서울	○
7	6.25전쟁체험전시관	2007	공립	현대사/사건	892/ 632,206	강원 (고성)	
8	다부동전적기념관	1981	공립	현대사/사건	미상/ 500,000	경북 (칠곡)	
9	제주4.3평화기념관	2008	공립	현대사/사건	5,488/ 436,977	제주	○
10	포로수용소유적공원	1999	사립	현대사/사건	218/ 395,749	경남 (거제)	
11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1999	사립	현대사/사건	59,872/ 300,000	부산	○
12	강원도디엠제트 박물관	2009	공립	현대사/사건	6,581/ 272,726	강원 (고성)	
13	서울역사박물관	2002	공립	통사/지역	213,845 /234,978	서울	○
14	칠곡호국평화기념관	2015	공립	현대사/사건, 인물	83/ 178,070	경북 (칠곡)	
15	청계천박물관	2005	공립	근현대사/지역	미상/ 166,222	서울	○
16	부산근현대역사관	2003	공립	근현대사/지역	3,399/ 149,346	부산	○
17	제주항일기념관	1997	공립	근대사/지역	444/ 149,000	제주	
18	국립일제강제동원역 사관	2015	국립	근대사/사건	2,798/ 145,018	부산	

	박물관 명	개관 년도	운영	특징	소장유물/ 연관람인원	소재지	조사 여부
19	한국근현대사박물관	2005	사립	현대사/지역	70,000/ 145,000	경기 (파주)	○
20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2005	공립	현대사/지역	5,349/ 140,092	인천	○
21	유엔평화기념관	2014	사립	현대사/사건, 기구	10,434/ 139,755	부산	
22	춘천지구전적기념관	1978	공립	현대사/사건	미상/ 130,000	강원 (춘천)	
23	왜관지구전적기념관	1978	공립	현대사/사건	미상/ 115,045	경북 (왜관)	
24	목포근대역사관	2014	공립	근대사/지역	120/ 103,904	전남 (목포)	
25	한국이민사박물관	2008	공립	현대사/사건	9,898/ 100,736	인천	○

위의 표를 분석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근현대역사박물관 분석표

개관 년도	1970년대	2		
	1980년대	1		
	1990년대	6		
	2000년대	10		
	2010년대	6		
지역별	서울	5	부산	4
	인천	2	경기	1
	강원	4	충남	1
	경북	3	경남	2
	전북	1	전남	1
	제주	2		
주제별	항일	4		
	한국전쟁	10		
	지역	8		
	통사	1		
	이민사	1		
	민주항쟁	1		

위의 두 개의 표는 「근현대역사박물관기념관 건립에 관한 조사분석」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근현대역사박물관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근현대역사박물관이 “박물관 봄”에 따라 1990년대 이후에 건립되었고, 지역적으로는 서울, 부산, 인천에 11개, 강원도에 4개, 경상에 5개, 전라에 2개, 충남 1개, 경기 1개, 제주 2개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근현대역사박물관이 몰려있다. 위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전시 주제가 한국전쟁, 항일, 그리고 민주화로 되어 있지만, 연간 관람객 수로 보면 한국전쟁, 지역사, 항일 순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2000년 이후에 개관한 지역의 근현대사 박물관이 약진했다고 볼 수 있다.

1) 구술 전시 현황

인류학자이며 큐레이터인 조성실에 의하면 구술자료를 박물관 전시에 활용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구술자료를 박물관 전시 자료의 한 부분으로, 대개는 보조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박물관 전시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구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시 내용에 대한 자료 조사와 수집 차원에서 구술사 인터뷰를 사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구술사가 주요 전시콘텐츠로 박물관 전시 내러티브를 구술자료로부터 가져와서 전시하는 것이다(조성실 2020: 317-8). 이 중 대부분의 구술자료 활용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국한되어 있다. 구술 전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국립민속박물관의 특별 전시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전북 민속문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진행된 ‘만들어온 땅과 삶: 호남평야 농부김씨의 한 평생’이라는 민속전시에서 구술자료의 활용이 두드러졌고, 지역 정체성을 말해주는 지역민들이 등장하였다(조성실 2015: 151). 활용된 구술자료는 촌로의 생애사, 한 노파의 구술사, 그리고 김제 농부들의 인터뷰 영상이었는데, 조성실은 “당대 전시 풍토에서 ‘농민들의

구술자료'라는 오브제는 획기적이었다"고 보았다(윌글 152). 이어서 국립민속박물관은 2012년 '내 이름은 마포포, 그리고 김하나'라는 다문화특별전에서 구술생애사로부터 전시 내러티브를 도출하여 사용하였다(윌글 155). 그리고 같은 해 아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의 구술을 채록하여 아리랑 특별전이 전시되었고, 2014년에는 '출산, 삼대(三代) 이야기'에서는 3대의 여성들의 출산 이야기가 주된 전시 요소가 되었다(윌글 159).

〈표 1〉에서 보면 2024년 1월 현재 25개 근현대역사박물관 중 13개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박물관 중 상설관에서 구술 전시를 하는 곳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주4.3평화기념관, 한국이민사박물관,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총 7곳뿐이다. 구술자료가 전시에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많은 관람객을 가지고 있는 주요 박물관에는 구술 전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구술 전시의 형태

근현대역사박물관에서 하는 구술 전시의 형태는 대체로 비슷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쟁기념관에서는 학도 의용군, 낙동강 전투 참전 국군, 소년병 등의 인터뷰 자료를 모니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사진 1 참조). 그러나 헤드셋(headset)이 없어서 관람객이 많으면 잘 들을 수 없고 구술자를 선택할 수도 없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경우 고문 경험을 증언하는 항일운동가의 구술을 모니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사진 2 참조). 그런데 단지 고문에 대한 구술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옥사에 전시된 독립운동가들의 경우 구술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독립민주지사 특별전에서 다루는 민청학련 사건 전시에서는 민주지사 관련 구술 전시가 일부 사용되고 있다. 일제에 저항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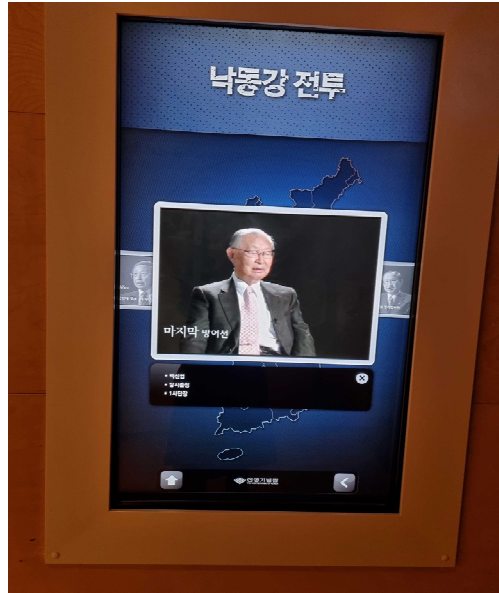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작고하신 상황이라서 이들의 구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형태는 모니터와 헤드셋 혹은 핸드셋(handset)을 사용하는 것이다. 제주4.3 평화기념관의 경우 피해자들의 구술을 작은 모니터와 헤드셋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사진 3 참조). 제주 4.3에 대한 규명은 구술 증언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시실에서 증언자들의 구술 영상은 제 4 전시실(초토화와 학살) 한 코너에 헤드셋을 겹비한 몇 개의 모니터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세 곳에서 구술 전시를 하고 있다(사진 4 참조). 첫 번째는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된 구술자들을 노동, 군무, 일본군 위안부로 나누어서 모니터에서 헤드셋을 통해서 구술을 들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항일운동가, 그 가족, 일반 국민들의 호국 보은에 대한 인터뷰를 모니터와 헤드셋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대한애국청년당의 1945년 5월 부민관 폭파 사건 증언자의 구술을 들을 수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도 일제 식민 지배, 6.25 전쟁, 전후 경제개발에 대한 구술이 모니터와 핸드셋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터치스크린과 핸드셋 형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다양한 일반인들의 IMF 경험은 터치스크린에서 구술자 선택이 가능하다(사진 5 참조). IMF 구술 전시의 경우 구석진 곳에서 앉아서 집중해서 구술자를 선택하여 다양한 구술을 들을 수 있다.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도 구술 전시 부스에서 부산의 독립영웅과 부산 피란민들의 구술 증언을 들을 수 있다(사진 7 참조)

마지막의 형태는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구술은 특정 구술자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는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의 구술 전시는 하와이 이민 1세대 함해나 할머니의 구술을 들을 수 있다(사진 6 참조). 전시장에 설치된 할머니 모형과 마주 앉아서 구술을

들을 수 있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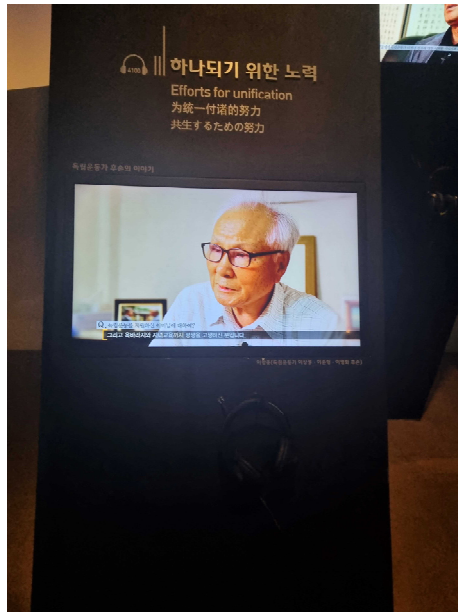
〈사진 1〉 전쟁기념관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 구술 증언



〈사진 2〉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항일운동가 고문 구술 증언



〈사진 3〉 제주4.3평화기념관의 피해자 구술 증언



〈사진 4〉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가 후손 구술 증언



〈사진 5〉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IMF 경험 구술 증언



〈사진 6〉 한국이민사박물관의 함해나 구술 증언



〈사진 7〉 부산근현대역사관의 피란민 구술 증언

이상 7개의 근현대역사박물관에서 전시콘텐츠로 활용된 구술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쟁기념관에서는 6.25 참전 용사와 학도의용군의 구술을 활용하였다. 독립기념관에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항일운동가와 그 가족의 구술을 활용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6.25 경험 증언, 경제성장 증언, IMF 증언, 일본군 위안부 증언을 활용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항일운동가의 증언을 활용하였고, 제주4.3 평화기념관에서는 제주 4.3 피해자,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하와이 이주민,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는 부산 피란민의 구술 증언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구술 전시에서 구술자료는 전시의 보조 자료로써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술자의 목소리가 전시의 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구술자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IMF 구술전시를 제외하고 전시용 콘텐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생애사라기보다는 증언으로 수집된 것이어서 전시 주제를 확장시키거나 다른 목소리를 포함하는 것을 지향하기보다는 사건의 진상 규명의 일환으로 수집되어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술 증언의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고 개인적 경험과 기억은 증거 자료로서 전시 주제 서사에 기여하고 있다.

3) 구술 전시의 효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근현대역사박물관의 구술 전시는 전시 주제 서사를 확장하는 도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구술 증언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장치들을 통해서 사건 참여자들의 생애사적 맥락과 함께 다양한 구술 전시가 이루어진다면 구술 전시는 기존 전통적인 오브제와는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구술 전시의 첫 번째 효과는 사건 참여자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성과 진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 교과서와 박물관의 오브제는 시각적

자료로서 보기와 읽기를 요구한다면 구술은 듣기를 요구한다. 월터 옹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1995)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술문화는 매우 상황적이고 현장적이기 때문에 구술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역학 관계에 민감하다. 구술은 전시 오브제보다 더 강력하게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요구한다. 구술 전시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보고 읽기에서 더 나아가 듣기를 통해서 구술자와의 공감을 요구한다. 이때 전시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성은 구술의 생생함으로 극대화될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취조실과 고문실 맞은 편에 있는 항일운동가들의 구술 전시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전쟁기념관의 참전 용사들의 구술 전시도 전쟁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기여한다.

구술 전시의 두 번째 효과는 전시 서사의 다성성(multivocality)이다. 조성실에 의하면 기존의 박물관 전시의 화자는 큐레이터 한 명이지만 구술 전시에는 화자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즉 박물관 전시의 권위가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큐레이터가 관여하는 영상 편집이나 연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실은 구술사가 박물관을 만나면 가지는 장점은 구술사가 학자들의 것이었는데 일반 시민들도 구술사를 만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양자에게 다 좋다는 것이다.¹⁾ 이는 소스커뮤니티(source community)의 박물관 전시 참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조성실 2016), 박물관이 단선적인 화자의 권위로부터 나와 구술 전시를 통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 화자의 다성성은 역사교과서나 기존의 박물관 전시가 주는 단선적인 역사 이해에 질문을 던지게 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IMF 경험에 대한 구술 전시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구술 전시의 세 번째 효과는 전시 오브제의 맥락화(contextualization)에

1) 2022년 12월 27일, 전주 모 카페, 조성실 1차 인터뷰 중에서

기여한다는 것이다. 근현대역사박물관에 있는 유물과 사건 중심의 전시가 실제로 그 유물을 남긴 사람들과 그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역사박물관과 같은 지역사 박물관 전시에서도 지역의 역사는 보이는데 그곳에서 살아온 혹은 이주해온 지역민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성실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아리랑전에서 민중의 구술 영상을 곳곳에 배치한 것은 “아리랑 전승자들의 일상적 삶을 최대한 맥락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한 전시물 설치의 결과”라고 하였다(2015:161). 권용석은 박물관이 유물의 보관소가 아니라 문화의 ‘접촉지대(contact zone)’되기 위해서는 구술 증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로서 한 국이민사박물관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서 증언 위주의 전시가 역사의 주체인 사람들을 재조명하고 있다고 보았다(2018:306). 박물관 전시를 위한 유물이나 유적 조사 시 인터뷰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구술사 인터뷰를 통하여 유물의 사용자와 유적의 거주자들의 경험과 의미를 드러내고 구술 전시를 할 때 전시 오브제의 맥락화는 더 증진될 수 있다.

구술 전시의 네 번째 효과는 구술자의 목소리를 통한 기억의 공유와 연대다. “박물관이 세계화 시대에 향토적, 지역적, 민족적 자기 확인을 위한 문화적 기억의 장소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윤용선 2017: 278). 다양한 구술자들의 목소리는 해당 사건을 경험한 동시대 관람객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환기시키며 자신의 경험과 구술자의 경험을 연결시키면서 개인적 사적 기억은 공공 기억(public memory)으로 변화한다. 제주4.3 평화기념관은 구술 전시를 “집단 기억의 전시와 환기를 집단 정체성을 배양하기 위한 도구(권용석 2018: 293)”로 본다. 기념관의 구술 전시는 제주 4.3 사건 증언자들의 경험을 당시 사건을 경험한 도민들의 기억과 연결시켜 기존의 공식적인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집단기억을 하나의 대항기억으로 만들어낸다. 해당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관람객들은 구술의 생생함을 통해서 역사 교과서에 있는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을 이해하게 된

다. 제주4.3 평화기념관의 구술 전시는 전후 세대들에게는 제주 4.3에 대한 공공 기억이 하나의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으로 전승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술 전시는 기억의 공동체(community of memory)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구술 전시의 다섯번째 효과는 ‘구술자의 소외현상’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조성실은 구술채록이 끝나면 구술자는 이후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구술채록사업의 결과물은 엘리트 구술채록을 제외하고 구술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녹취록을 검토하거나 자신의 구술자료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필자와 조성실이 참여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맞춤형 구술 영상 제작’ 사업에서는 IMF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구술채록하면서 구술 영상을 제작하였다. 이 구술 영상들은 역사관의 IMF 구술 전시에서 사용되었는데, 구술자들은 인터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구술자들도 3~6 시간의 영상 촬영이 편집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전시 영상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조성실은 전시 영상이 서비스 되기 전에 구술자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2020: 317).

마지막으로 구술 전시의 여섯 번째 효과는 역사의 주체가 확장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관 김수진은 다음과 같이 구술전시의 효과를 이야기했다.

“이제(구술전시)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까다로운 조건 있지만, 있으면 달라지는거죠. ... 전시관의 이동 통로에 갑자기 그냥 일반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탁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하, 그거는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라는 느낌을 확 주는 거잖아요. 그게 벌써 달라진다. 구술 전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그런 점에서 일반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말로 얘기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눈에 띄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잖아요. 한번 와 봐라 들어봐. 그것만으로도 좋은 훌륭한 효과가 있다.”²⁾

구술사는 문헌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과거의 경험을 구술사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하여 역사 쓰기를 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쓰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나 기존의 박물관 전시의 주인공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과거의 경험이 역사가 되고 따라서 그들의 역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술 전시는 역사의 주체를 밑으로부터 확장시켜서 전시 주체가 다원화될 수 있다(조성실 2016: 221).

4) 현재 구술 전시의 문제

그렇다면 구술 전시의 다양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왜 구술 전시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고 구술자료가 제대로 전시되지 못하고 있을까.

(1) 구술 전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이에 대해서 김수진은 구술 전시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³⁾ 구술 전시의 핵심은 소리라서 시간과 집중이 필요한데 기존의 구술 전시는 작은 모니터를 사용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전시는 걸어가면서 보는 것으로 20초 이상 주목하기 어려운데 전시 기획자들이 작은 모니터를 많이 사용했지만 구술 전시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구술 전시에서는 소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구술자들과 깊이 있게 만나게 하려면 정교하게 디자인되고 목적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구술 전시는

2) 2022년 12월 20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무실 밑 카페, 김수진 1차 인터뷰 중에서

3) 2022년 12월 20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무실 밑 카페, 김수진 1차 인터뷰 중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조성실도 구술 전시가 어렵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큐레이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다.⁴⁾ 일반 전시 기획보다 몇 배 더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큐레이터들만 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구술 전시 기획에서는 구술자와 큐레이터 간의 상호작용과 구술자와의 의견 상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2) 구술 전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료주의

김수진은 구술 전시의 전망에 대해서도 밝게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시 기획자들이 구술 전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고, 구술은 다큐멘터리의 일부라고 인식하여 구술사가 아니라 전시의 보조적 자료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구술 전시는 오히려 인터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제대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보았다. 사실상 최근 전시에서 인터뷰가 너무 많이 사용되지만 그것이 구술 전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⁵⁾

전시기획자나 큐레이터들이 구술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에 추가하여 국공립박물관의 관료주의도 문제가 된다. 조성실은 구술 전시가 앞으로 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양적 증가에 맞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관료들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큐레이터들이 구술 전시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관료들의 인식이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하였다.⁶⁾

⁴⁾ 2022년 12월 27일, 전주 모 카페, 조성실 1차 인터뷰 중에서

⁵⁾ 2022년 12월 20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무실 밑 카페, 김수진 1차 인터뷰 중에서

⁶⁾ 2022년 12월 27일, 전주 모 카페, 조성실 1차 인터뷰 중에서

(3) 청각 자료의 시각화

구술 전시는 구술이라는 청각 자료를 시각 자료로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참여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관의 IMF 구술 영상 제작은 일반적인 구술사 인터뷰와는 달랐다. 이 사업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조성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단 구술자 섭외가 매우 힘들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전시될 동영상 촬영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2020:312). 또한 전시 영상을 생산하기 위하여 스튜디오 촬영을 하게 되니까, 영상의 배경이 주어지고 영상이 잘 나오도록 의상과 메이크업도 필요하다. 특히 면담자에게 곤혹스러운 것은 인터뷰 시 면담자의 음성이 소음이 될 수 있어서 질문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동시에 구술자의 구술에 대한 반응을 음성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성실은 “면담자는 구술자의 말에 ‘네’라고도 대답할 수 없는 철저히 화면 밖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윋글: 315). 이렇게 구술자와 면담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터뷰라는 연행적 측면은 약화된다. 그리고 카메라는 구술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다. 카메라가 돌아갈 때와 돌아가지 않을 때 구술자들의 반응과 구술이 달라진다(윋글: 314). 즉 구술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선택하게 된다.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 전시 영상은 일반적인 인터뷰가 구술자의 삶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구술의 맥락이 약화된다.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은 편집을 거쳐서 전시콘텐츠로 탄생하는데, 이때 누가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구술자의 이야기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큐레이터의 몫이다. 그리고 구술 전시 영상은 구술자의 풀(pool)을 좁게 한다. 전시 영상 촬영을 전제로 하는 구술사 인터뷰를 많은 사람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카메라 앞에서 구술할 수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특정 경험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5) 구술 전시의 방향과 대안

구술 전시란 구술사를 활용하여 생산된 전시콘텐츠를 말한다. 그렇다면 구술사를 활용한 전시콘텐츠는 현재와 같이 모니터와 헤드셋을 통해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형태로 되어야 하는가. 조성실은 구술을 전시의 보조 자료로서 모니터로 인터뷰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구술 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1) 구술사 교육과 구술자료에 대한 이해 필요

현재 구술 전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큐레이터들이 구술사와 구술사 인터뷰가 생산하는 구술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모든 인터뷰 자료가 구술사가 아니다. 대부분의 큐레이터들은 구술사를 다큐멘터리의 일부로 인식한다.⁷⁾ 대담이나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는 구술사 인터뷰와는 많이 다르다. 대담은 면담자와 대담자가 서로 대화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뷰는 면담자가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구술자가 이에 대답을 하는 형식을 지닌다. 다큐멘터리는 구술자의 서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시선과 문제의식으로 구술자의 이야기를 끌어내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구술사 인터뷰는 듣기 중심의 인터뷰로 면담자는 구술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서 구술자는 자기 서사의 주체가 된다. 서술의 주체로서 구술자가 전시의 발화자가 되게 하여 큐레이터의 단선적인 발화가 아니라 다양한 구술자들의 다성성이 들어나는 전시 서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구술 전시

7) 필자는 2023년 모 박물관에서 구술채록자료를 가지고 전시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의 제안서 평가회에 평가자로 참여했는데, 대부분의 제안서는 구술사 인터뷰를 대담 혹은 다큐멘터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술 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큐레이터들이 구술사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현재 큐레이터들은 구술사에 관심이 있고 구술 전시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교육받을 곳도 없다. 큐레이터들의 교육 과정이 구술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 역사학과 교육과정에서 공공역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박물관은 공공역사가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미국 공공역사가 슐츠(Schulz)에 의하면 미국의 역사학과에 있는 공공역사 대학원 과정은 학제 간 과정으로 인류학, 고고학, 역사지리, 민속학, 사업경영, 정책연구, 문헌정보학, 구술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2006:34). 구술사를 공부하고 실제로 구술사 인터뷰를 해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전시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2) 구술 영상이 구술 전시라는 인식 해체

박물관의 전시 자료는 시각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인터뷰 동영상을 편집하여 모니터를 통해서 전시하는 것이 구술 전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제로 주요 구술채록기관들이 수집한 구술자료에는 동영상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기관구술채록 인터뷰 동영상은 1개의 카메라로 찍은 기록용 동영상으로 전시콘텐츠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구술 전시를 하는 대부분 기관의 구술 전시 동영상은 대부분 기록용 동영상을 편집하여 모니터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구술자료의 1차 사료는 목소리, 즉 음성이다. 실제로 구술사는 발화하면 사라지는 목소리를 저장할 수 있는 녹음기의 발명으로 시작되었다. 동영상은 목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1차 사료이지만 영상이 없이 목소리만을 활용하는 전시도 가능하다.

조성실은 박물관이 인터뷰 동영상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구술사를 활용하여 동영상이 아닌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성실은 2018년 전주시 고물자골목 청년 공동체와 함께 구술 전시를 했는데, 전시 기획의 전체적인 단계에서 구술사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방대한 분량의 녹취록을 전시콘텐츠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술자의 생애사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마을 청년세대가 선정하여 ‘구술사 단어 카드’로 만들어 전시하였다. 구술자의 음성이 아니지만 구술자에게 익숙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낯선 작업 용어, 방언 등의 의미와 구술사적 맥락을 카드 뒷면에 기술하였는데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조성실 2020: 318). 이는 인터뷰 동영상이나 아니더라도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술사 인터뷰를 전달할 수 있는 전시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목소리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독립기념관의 제 4관 겨례의 함성관이다. 그런데 사용되는 음성은 구술사 인터뷰 자료는 아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전시에서 구술자를 특정할 수 없지만 구술을 들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자료를 볼 수 있다. 이 전시를 큐레이팅한 김수진은 이러한 형태는 구술의 내용보다는 구술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현존성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한다. 구술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드러나게 하려면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목소리만을 통한 전시 연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⁸⁾

따라서 구술 전시는 보다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김수진은 구술을 전면적으로 하는 전시는 거의 예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도의 큰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구술자와 만나게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미술적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구술의 장르가 탁 강조되려면 약간 예술적인 것과 결합을 해야 사람들

⁸⁾ 2022년 12월 20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무실 밑 카페, 김수진 1차 인터뷰 중에서

이 주목하게 되고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그게 뭔가 와꾸(틀)가 만들어지지, 어떤 역사적 사건 전시에 일부에 뭐가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계속 쪼 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조적 장치가 되버리는거죠. 구술은 그렇게 되버리는 순간 구술의 생명력이 사라지는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구술만을 전면적으로 하면 그것만 하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술적인 거랑 결합하는 거예요.”⁹⁾

(3) 전시 유물과 구술사의 연계

조성실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관에서 IMF를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의 구술 영상이 전시되고 있지만 IMF관련 유물 전시와 구술 전시가 분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조성실 2020: 319-20). 그래서 구술 전시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구술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오브제가 함께 전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술과 구술이 이야기하는 시대상의 유물들이 서로 연관이 안된다면 구술과 오브제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조성실은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열리는 민속생활축제에서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람객에게 보여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과 시연을 통해서 유형 유산과 무형유산을 결합시킨 사례를 제시하였다(2016: 224). 구술과 오브제의 연계는 연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레이블이나 기증을 통해서 구술과 유물을 매치시켜서 전시할 것을 제안했다. 물론 통사관이나 상설관에서 개인적 구술과 유물을 매치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기획전시에서는 구술과 유물을 연계시키는 것은 용이하다.

(4) 무형문화유산과 연계

국제박물관협회는 2007년에 무형유산을 포함시켜 박물관에 대한 정의

⁹⁾ 2022년 12월 20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무실 밑 카페, 김수진 1차 인터뷰 중에서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박물관은 인류와 인류 환경의 유형, 무형 유산¹⁰⁾을 연구, 교육, 향유할 목적으로 이를 수집, 보존, 조사연구, 상호교류하는 비영리적이며 항국적인 기관으로서 대중에게 개방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조린 네이링크, 에블린 세거스, 에브도키아 차키리디스, 2020: 56). 또한 유네스코에서는 무형유산 보호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박물관의 역할을 명시하였다(윅글 57). 이것은 유물 중심의 박물관 전시에 무형유산을 포함하는 전시로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조린 네이링크, 에블린 세거스, 에브도키아 차키리디스는 박물관이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에서 무형이라는 단어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예 기술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은 공예 도구 등과 같은 유형 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윅글, 58). 또한 박물관 소장품과 관련된 맥락적 정보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술사 인터뷰나 녹음파일은 오늘날 더 이상 수행되지 않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실천을 기록한 것이거나 ICH 5개 도메인¹¹⁾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형문화유산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윅글 59).

10) 2001년 박물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박물관은 인류와 인류 환경의 물적 증거를 연구, 교육, 향유할 목적으로 이를 수집, 보존, 조사연구, 상호교류하는 비영리적이며 항국적인 기관으로서 대중에게 개방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11) ICH 5개 도메인: 구전, 연행 예술, 사회적 실천, 의례와 축제, 자연과 우주 혹은 전통 공예에 대한 지식 <https://ich.unesco.org/en/what-is-intangible-heritage-00003>
The term ‘cultural heritage’ has changed content considerably in recent decades, partially owing to the instruments developed by UNESCO. Cultural heritage does not end at monuments and collections of objects. It also includes traditions or living expressions inherited from our ancestors and passed on to our descendants, such as oral traditions, performing arts, social practices, rituals, festive event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or the knowledge and skills to produce traditional crafts.

구술사에서 다루는 구술자의 과거 경험이 담긴 구술자료와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구술자료(구전)는 다르다. 그러나 지역사회나 공동체에서 전승되어온 사회적 실천에 대한 구술사 자료는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샐리 예코비치는 “무형유산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켰는데 여기서 전통과 발자취, 이야기를 기록 및 전시하는 일이 역사의 전시 방식을 향상시킨다는 점, 그리고 이질적인 배경과 문화,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한데 묶어줄 수 있다는 점을”지적했다(2006: 41). 예코비치는 미국 뉴저지역사협회에서 지역박물관으로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뉴저지 주민들의 이야기와 표현적 문화를 대상으로 유물을 수집하고 또한 무형유산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로 나온 “기억 쫓기: 뉴저지의 카리브 민속 예술전”은 카리브 지역 이주민들의 민속 예술을 기록하고 그들이 뉴저지에 적응하면서 전통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었다. “가정식과 외식전”에서는 미국 전통 음식의 진화와 미국 가정 저녁 식사의 역사와 지역사회 음식문화의 변화를 기록하였다(윌글 42). 이러한 박물관 전시에서 예코비치는 무형문화(전통, 음악, 속어, 무용 등)가 전시회를 보다 ‘뉴저지’답게 만들었다고 보았다(윌글 43).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작업에는 구술사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고, 그 자료들은 구술사 자료이면서 동시에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예코비치는 ‘구전 역사 수집’이라고 하는데, 뉴저지 지역사에 대한 구술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구술이라는 청각 자료가 전시콘텐츠화되는 과정은 조성실이 무형문화유산 전시는 유형이 없는 무형유산을 유형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와 같다. ‘무형의 시각화’는 물질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전시는 유무형유산을 통합하는 것이고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조성실 2022: 58).

4. 공공역사 관점에서 본 구술 전시의 쟁점들

공공역사가인 켄(Hilda Kean)과 마틴(Paul Martin)은 “공공역사를 과거가 역사로 구성되는 과정과 역사 창조에 국가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포함되는 실천”으로 보았다(윌글: xiii). 따라서 공공역사는 국가, 지역사회, 개인들 차원에서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이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윌글: 2020: 15). 미국의 공공역사가 코빈(Thomas Cauvin)은 공공역사의 실천적 지향을 세 가지 지점에서 지적하였다. 첫 번째 공공역사는 비학문적 대중을 청중으로 하고 있다. 박물관과 같이 대학 밖에서 다양한 청중은 공공역사가들에게 다양한 지식, 이해, 질문, 배움의 방식들을 요구하게 된다(Cauvin 2016). 두 번째 공공역사는 활용성을 지향한다. 상아탑이라는 학문적 영토에서 나와서 과거를 활용하여 현재의 쟁점, 질문, 청중, 행위자, 정책들에 활용되는 역사를 지향한다. 세 번째 구술사가이며 공공역사가인 프리쉬(Michael Frisch)가 제안한 “공유된 권위(shared authority)”(2009)다. 코빈에 의하면 다양한 청중들의 참여를 통한 역사 연구는 역사가들이 역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Cauvin 2016:14). 그렇다면 공공역사 관점에서 구술 전시는 어떤 쟁점들을 가지고 있을까.

1) 개인적 기억의 주관성

기본적으로 구술사는 기억연구가 아스만(A. Assmann)이 말하는 의사소통적 기억(communicative memory)를 다룬다. 즉 구술사 인터뷰는 현재 살아있는 구술자의 과거의 경험이 기억을 통해서 재현된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집된 구술자료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집된 구술자료가 기록화되고 사료화될 때 구술자료

는 공공 문서(public document)가 된다. 이렇게 공공 문서가 될 때 개인적 기억은 더 이상 사적인 기억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기억은 회상 과정에서 공공 기억(public memory)과 공적 기억(official memory)와의 상호작용을 거치게 된다(윤택림 2020: 33). 그리고 이 구술자료가 구술 전시로 콘텐츠화 될 때 의사소통적 기억은 관람객들과의 교호작용을 통하여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이 된다. 이때 개인적 기억의 주관성은 개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드러내는 매개가 되고 공공 기억의 일부가 되어 개인들 차원에서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보여주는 공공역사가 된다. 즉 국가, 지역사회,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구술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기억 혹은 집단적 기억으로서 구술 전시는 개인과 집단들의 역사적 경험이 공유되고 문화적 기억을 통해 역사가 만들어지는 공공역사라고 볼 수 있다.

2) 다수의 전시 발화자

역사박물관 특히 근현대역사박물관은 한국 근현대사만큼이나 논쟁의 대상이다. 또한 이들 박물관은 국립과 공립 역사박물관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영향력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때문에 전시의 발화자가 누가인가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발화자가 전시 서사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전시에서는 큐레이터가 전시의 발화자가 된다. 하지만 큐레이터는 개인적 차원에서 전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박물관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 속한 정부 기관 및 지자체가 전시 주제와 전시의 구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기존의 전시는 큐레이터가 제시하는 전시 주제 서사를 교과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교과서는 단선(linear)적이고 또한 단성적(univocal)이다. 이러한 전시 주제 서사 전달 방

식은 공공역사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구술 전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즉 전시 서사의 다성성(multivocality)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구술자료가 다양한 맥락 속에 위치한 개인들의 서술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전시 발화자의 존재는 공공역사가인 큐레이터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코빈이 말한 “권위의 공유”, 즉 청중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진다. 구술사는 구술자와 면담자 사이의 공동작업이며 구술자는 구술자료의 서술의 주체다. 구술 전시는 큐레이터로 하여금 대중들과 권위를 공유하면서 과거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중재(mediator)하거나 혹은 소통(communicator)하게 하는 역할을 가지게 한다(Cauvin 2016: 15).

3) 공공역사교육

역사박물관은 대표적인 역사교육의 장으로 구술 전시는 공공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다. 구술 전시는 음성자료를 그대로 들려주기도 하고, 동영상을 통하여 오디오-비주얼(audio-visual)한 자료로 전시되기도 한다. 이때 구술자의 목소리는 시각적인 전시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와 달리 관람객의 청각을 통하여 소통이 되고 구술자의 경험이 공유된다. 구술 영상의 경우 구술자의 얼굴 표정이나 인터뷰의 분위기 혹은 상황까지도 볼 수 있게 해준다. 구술 전시에 보여주는 역사적 경험을 직접 경험한 박물관의 관람객은 감정이입을 통해서 구술자의 스토리텔링을 듣게 되고 공감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다름을 느낀다. 그 역사적 경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역사 교과서나 전시 유물이 할 수 없는 목소리의 전달을 통해서 과거의 뼈만이 아니라 살과 피를 듣게 된다.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도 개인적 맥

락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 경험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듣기, 혹은 정청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구술 전시는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공공역사의 장이 된다.

4) 기억의 연대를 넘어

기존의 박물관 전시는 대부분 큐레이터의 단선적인 전시 서사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현재와 같이 기억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물관 전시는 특정한 사회적 기억만을 주입시킬 수 있다. 구술 전시에서도 관람객들은 구술자들이 경험한 사건을 들으면서 자신의 기억과 구술자들의 기억과 동일시 하여 기억의 연대를 가져올 수 있다(권용석 2018: 309). 여기서 기억의 연대 이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공공역사를 만들어 가는 관람객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윌글, 311). 그러나 구술 전시는 다양한 구술자들의 기억을 환기시켜서 관람객들이 자신과 다른 경험과 기억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여지도 제공한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항상 논쟁의 지점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술 전시는 바로 공공역사에서 중요한 쟁점인 여러 진실 등의 경합을 어떻게 중재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유발시킨다.

5. 맺는 글: 공공역사에서 구술 전시의 역할과 전망

2000년을 전후로 시작된 역사박물관 붐은 공공역사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이동기 2018). 박물관이 공공역사의 장으로 인식되면서(윤택림 2020: 35),

공공역사 관점에서 국립박물관의 상설관 분석에서 나아가 이제는 지역사 박물관 전시에까지 확장되고 있다(권용석 2018). 이 과정 속에서 시작된 근현대역사박물관 구술 전시는 아직 빈약하고 천편일률적인 구술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많은 고민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역사박물관 구술 전시는 공공역사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현재 구술 전시를 하는 국공립박물관에서 구술사는 보조적인 자료이고 국가나 지자체 중심의 전시 서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왕족, 양반, 엘리트, 정치인과 관료 중심의 박물관 전시와 비교한다면 항일운동가, 참전 용사, 국가폭력 희생자, 이민자,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발전일 것이다. 그만큼 구술 전시는 역사의 주체를 확장시켜서 공공역사의 역사 만들기의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다.

따라서 구술 전시는 박물관 전시가 국가사에서 국민사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구술 전시가 지역사박물관으로 확대될 때 지역민의 역사와 마을사로 나아갈 수 있다. 2003년부터 무형문화유산이 박물관 전시에 포함되면서 박물관의 패러다임이 오브제 중심에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소스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은 사람과 공동체와의 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조성실 2016: 226). 「근현대역사박물관기념관 건립에 관한 조사 분석」보고서에서도 마을박물관의 출현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근현대역사박물관인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이나 전주 뇌송늪우스박물관(조성실, 이정우 2021), 부산 영도 깡깡이박물관과 같은 마을박물관은 마을 주민들의 유물 기증과 당대에 대한 구술 증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부산 산복도로전시관처럼 실제로 마을박물관은 마을사를 아카이빙하는 마을아카이브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들 마을박물관에는 현재 구술 전시가 없지만 구술채록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작업이고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전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이 소스커뮤니티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고, 마을 사람들과 박물관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박물관 전시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조성실 2016: 224). 이러한 현상은 역사박물관의 구술 전시가 공공역사의 장인 박물관에서 전시 주체의 다양화와 함께 지역민의 역사와 마을사로 확장되는데 기여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강선주, 2008, “박물관 활용 역사 수업 방안,” 『기전문화연구』 34: 167-196.
- 강선주, 2012, “역사교육과 박물관 역사 전시의 만남,” 『역사교육연구』 16: 7-35.
- 고선영·한은령, 2018, “한국·중국·일본의 역사박물관 자료전시와 스토리텔링 특징 분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중국 국가박물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1): 38-47.
- 권용석, 2018, “인천 박물관들 속 기억의 정치와 정체성 만들기: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IDI 도시연구』 13: 287-317.
- 김민정, 2012,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역사 학습,” 『역사교육연구』 16: 37-68.
- 김상미, 2012, “공식기억 창출과 전쟁 교육 장치로서의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의 전시사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7(3): 45-70.
- 김정현, 2018, “트라우마적 기억 재현매체로서의 뮤지엄 전시콘텐츠 연구: POLIN Museum of History of Polish Jews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융합학회 하계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pp. 525-529.
- 김형욱, 외, 2017, 『부산 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 기본 계획』, 부산연구원.
- 민족문화연구원, 2020, 『근현대역사박물관기념관 건립에 관한 조사분석』, 고려대학교.
- 샬리 예코비치, 2006, “역사박물관의 무형유산을 통한 현재와 과거의 연계,” 『무형유산』 1: 40-46.
- 윌터 J. 웅, 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 윤용선, 2017, “박물관의 역사 전시: 집단정체성 형성과 역사 정치의 문제,” 『서양역사와 문화연구』 43: 267-291.
- 윤택림, 2020, “개인적 서술에서 공공의 기억으로: 구술사와 공공역사,” 『구술사연구』 11(1): 9-45.
- _____, 2020, “공공역사와 공공역사가,” 『현대사와 박물관』 3: 8-17.
- _____, 2023, “구술자료 생산 및 활용 현황과 구술사의 공공성(publicness),” 『구술사연구』 14(1): 211-244.
- 이동기, 2011,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독일연방공화국역사의 집’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과정 비교,” 『역사비평』 96: 243-279.
- _____, 2018, “‘공공 역사’와 역사박물관,” 『제61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소비시대,

- 대중과 역사학 자료집], pp. 79-88.
- 이동기 · 홍석률, 20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업 비판과 정책 대안,” 『역사비평』 99: 284-313.
- 이서영 · 최익서, 2018, “현장역사박물관의 서사 구조와 전시 스토리텔링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3(2): 171-182.
- 이정은 · 최고운, 2020, “박물관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분석: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4(1): 129-157.
- 이정원, 2012, “지역 박물관 연계한 학교교육: 국립전주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물관교육연구』 8: 17-27.
- 이지원, 2020, “공공역사와 통사의 랑데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관의 전시개편,” 『현대사와 박물관』 3: 156-165.
- 전진성, 2021, “국가의 기억과 국민의 기억사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에 대한 단상,” 『역사비평』 134: 338-359.
- 전희진 · 박광형, 2016, “역사적 기억의 덧쓰기(palimpsest)에 대한 국면사적 접근: 용산 전쟁기념관과 제주 4.3 평화공원의 비교,” 『문화와 정치』 3(1): 1-25.
- 정혜연, 2020, “공존의 미래를 만드는 참여적 역사박물관: 뉴욕시박물관의 Future City Lab,” 『미술교육논총』 34(2): 1-28.
- 조린 네이링크, 에블린 세저스, 에브도키아 차키리디스, 2020, “살아있는 무형유산과 이에 대한 박물관에서 실천 사이의 접점: 대화를 통한 만남과 유산보호를 위한 제3공간 만들기,” 『무형유산』 15: 54-73.
- 조성실, 2015, “구술사를 활용한 민속전시 연구: ‘촌로의 한평생’에서부터 ‘나의 출산 이야기’까지, 국립민속박물관 특별 전시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6(2): 147-175.
- _____, 2016, “소스 커뮤니티 관점에서의 박물관 전시와 쟁점들,” 『예술경영연구』 38: 211-241.
- _____, 2020, “구술 기록에 기반한 박물관 전시콘텐츠 생성의 방향과 과제,” 『예술경영연구』 56: 305-327.
- _____, 2022, “무형문화유산 전시의 분석과 방향: 전통공예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43: 37-61.
- 조성실 · 이정우, 2021,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서 마을박물관 설립운영과 과제: 전주노송니우스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8(3): 1-25.

- 정호기, 2009, “전쟁 상흔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시선의 전환과 공간의 변화: 한국에서 전쟁기념물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pp. 499-535.
- 조혜진, 2015, “박물관 ‘전시’의 역사교육적 함의와 활용 방안,” 『역사교육』 134: 37-79.
- 최유나 · 이찬, 2011, “서사적 구조에 의한 역사계 박물관 전시 연출에 관한 연구: 서울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6(4): 149-157.
- 태지호 · 정현주, 2014, “공적 기억의 문화적 실천으로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아세아연구』 57(3): 146-179.
- Cauvin, Thomas, 2016, *Public History: A Textbook of Practice*, New York: Routledge.
- Frisch, Michael, 1990, *A Shared Authority: Essays on the Craft and Meaning of Oral and Public Histor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Kean, Hilda, 2013, “Introduction” in Kean, Hilda and Paul Martin, eds., *The Public History Reader*, New York: Routledge, pp. 13-32.
- Schulz, Constance B., 2006, “Becoming a Professional Historian” in James B. Gardner and Peter S. LaPaglia, eds., *Public History: Essays from the Field*, Krieger, pp. 23-40.

투고일: 2024. 01. 30. 심사일: 2024. 02. 15. 게재확정일: 2024. 02. 29

Abstract

Oral History Exhibition of Modern-Contemporary History Museum and Public History

Yoon, Taek-Lim

(Korean Oral History Research Center)

Modern-contemporary history museums have increased since 2000 in Korean Society with the boom of history museum which started in the 1990's around the world.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recent discussions about public history because it is museums that have been the major subjects of public history research. Lately oral history exhibitions have been introduced to modern-contemporary history museum since the oral narratives of witnesses who experienced major historical events have been collected through oral history interviews.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of modern-contemporary history museums, discuss the issues involved in oral history exhibitions, and suggest alternatives. For this, the first part of the paper looks into 25 modern-contemporary museums in terms of opening year, major theme, location, types of administration whose visitors are more than 100,000 in 2020, out of which 7 museums turn out to have oral history exhibitions. The types of oral history exhibitions are illustrated and their effects are analyzed to offer the more elaborated orientations for oral history exhibition. Lastly, several issues generated in oral history exhibitions will be discussed in relation to

public history, pointing out how oral history exhibitions contribute to the practice of public history in museums.

Key words : Modern-contemporary history museum, Oral history, Oral history exhibition, Public history